

KORASIA 포럼 2019 “한-아세안 30년 공동 번영의 신시대”
말씀자료
(2019.11.22.[금] 09:00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KORASIA 포럼 2019」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포럼 개최를 위해 애쓰신 것은 물론 저널리즘의 본령을 확고히 세우는 일과 함께, 시대 흐름에 맞춰 획기적인 디지털 언론환경을 개척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계신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즈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치 상황에 가려 잊힌 사이,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격화되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침체가 이어져 일본식 장기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대외환경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교착, 한미일 동맹 균열 등 주변 4강들과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편중된 우리나라의 교역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중국에 이어 우리의 2대 교역 대상인 아세안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은 고도성장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긴밀한 교류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찾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세안과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한-아세안 30년: 공동 번영의 신시대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KORASIA 포럼 2019」가 우리와 아세안의 전략적 협력과 공동 번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KORASIA 포럼 2019」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포럼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년을 기념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개최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